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글로벌 관광도시 성공신화 쓰자”

김관영 도지사

시·군 순회방문 -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도비 지원 등 현안 논의

상하농원 스마트팜 찾아
체험... 건의사항도 청취



‘시·군과 함께하는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20일 고창군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현장 행정으로 방문한 상하농원 스마트팜 체험목장에서 먹이주기를 체험하고 있다.

고창군이 김관영 도지사과 ‘더 특별한 전북시대, 고창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도정과 군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초 시군 순회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는 20일 오후 고창군을 방문하고 1일 만에 고창군수로 위촉돼 간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청원과의 만남, 상하농원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군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삼덕읍 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비롯해 삼덕읍 군수님과 고창군이 이룬 많은 성과들을 축하드린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고창군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도비 지원 △고창 진입관문 경관조형 설치 △탐사터 은곡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어진 청원과의 만남에서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가장 경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생명과학 문화관광인데 여기에 가장 특화된 곳이 바로

고창군이다’며 ‘북부·수박의 도시 고창군이 전라북도의 농생명 혁신을 이끌고 세계유산 6관왕 달성으로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로 함께 성공신화를 써나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행정으로 방문한 상하농원 스마트팜에서는 사계절 딸기를 수확하고, 체험목장에서는 막이죽기도 체험했으며, 상하농원 휴영기 대표의 강선달 저수지 주변 테크살치로 상하농원 관광동선 확대와 차세대 스마트팜 설치 지원 등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상하농원은 생산과 제

조·가공, 문화 체험과 힐링·관광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대한민국 6차 산업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며 ‘고창의 대표적 관광지이자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인 상하농원이 더욱 발전해 지역농가들의 판로를 돕고,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김 지사는 고창군 청년정책협의회 관계자 등 도민과의 대화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타 지역으로 떠나는 대신 고창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며 혁신해 나가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청년거점센터 조성 합성패키지 사업 등을 통해 전북의 청년들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삼덕읍 고창군수는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김관영 지사께서 고창군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화답하며, ‘도정의 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창군이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기자



20일 부안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된 ‘전라북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관식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독도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독도 사랑 실천 계기’

부안 변산 독도체험관 개관식 열려
자연환경·역사 등 4개 공간 건립
세월호 등대 이전식도 함께 진행

부안군 변산반도에 위치한 독도체험관이 개관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20일 부안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진행된 전북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관식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이정석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교육청 간부들과 직속 기관장,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해 독도체험관 개관을 축하했다.

독도체험관은 △독도 일반현황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의 역사 △독도 체험 등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건립됐다.

각 공간의 핵심 주제를 지역 특성과 조화롭게 결합해 관람객이 독도를 보다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리 공간은 독도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동식물 등)이 관람객에게 특별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그래픽, 조형, 모형 등을 활용했다. 역사 공간은 문헌 기록과 사진, 그래픽, 영상, 고지도 활용 등의 시각 자료를 이용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몄다.

체험 공간은 디스플레이 변화, 영상, 터치패드, 스크린 등을 연동해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전북교육청은 독도체험관이 학생과 전북도민들의 독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된 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세월호 등대’ 이전식도 함께 진행됐다. 세월호 등대는 2002년 4월 전북교육청 앞마당에 설치, 지난 15일 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이전됐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비도 건립됐다.

학생해양수련원에는 해양안전체험관 수상안전체험관, 생존캠프체험장 등 해양사고를 비롯한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다.

수련 활동 외에도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 치유 프로그램도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에 개관하는 독도체험관을 통해 모든 학생과 전북도민들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주권 의식을 갖고 독도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배움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 특성화 국가산단 클러스터 도약 위해 산단 연계망 구축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특자도 연계기업 유치 특례 강화·첨단전략산업법 수소 추가 등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이슈브리핑 ‘국가 초격차 산업을 이끌 전북 국가산단단지 클러스터’를 발간해 신규 국가산단단지 후보지와 기존 산단 간 연계망을 구축해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수소와 테크푸드 분야의 후보지로 전북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부처별로 추진되는 정주여건 개선과 연구개발 등 연계 후속사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연구원은 이번 국가산단단지 신규 지정용 계기로 전북 특성화 국가산단단지 클러스터를 도약하기 위한 향후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 국가산단단지 후보지 지정 후속도감 있는 단지 조성이다. 후속 진행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산업단지 계획 인가, 용지 매입 및 조성 공사 등을 첨단산업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신속히 추진하고, 단순 제조·생산 중심을 넘어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생

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 개발방식에 대한 계획수립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둘째, 수소·식품·탄소 등 특성화 국가산단 연계망 구축이다. 먼저 반경 10km 내 산단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절된 부분을 세부 교통망으로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도1호선과 국도7호선을 연결 할 경우 식품과 수소, 탄소산단 간 연결망이 구축될 수 있기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도로 신설 계획이 탑재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 연계 기업 유치 특례 강화이다. 국가산단단지가 집적화된 전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입주기업 혜택 등의 특례를 확보해 전북 특성을 살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와 연구개발 등을 통해 국가산단과 기 구축된 일반산단 간 연계 협력도 제시했다.

끝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수소를 추가해 하드웨어적 국가산단단지에 조세특례와 특화단지 지정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을 결합해 규모화될 국가식품클러스터와 함께 전북 내 국가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의 쌍두마차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재훈 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사계절 설레는 ‘맛’과 ‘멋’의 도시 군산

GUNSAN

let's GO
맛과 멋이 있는 가자! 군산여행

U & I
너와 나, 우리가 함께하는 설레는 군산여행

NATURAL
천혜의 자연이 숨쉬는 힐링 군산여행

SLOW
군대 역사따라 천천히 걷는 시간여행 군산

ACTIVE
파리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액티비티 군산여행

NICE
오감만족 체험이 가득한 이주 나이스~한 군산여행